

#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 1. 서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의해 학술지 평가가 제도화되어 시행된 지도 10여 년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 제도의 공과 과에 대한 토론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나름대로 제도적 정비를 끝내고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음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선 이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기관지 『탐라문화』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은 제주학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제도적 뒷받침이 그대로 학술적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탐라문화』의 등재 후보지 선정은 앞으로의 제주학 연구에 큰 기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역시 수록 논문의 수준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제주학의 정립 문제는 이미 (사)제주학회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sup>1)</sup> 특히 명칭을 제주도연구회에서 제주학회로 개칭하면서, 이것이 ‘제주학’회인지 ‘제주’학회인지 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정답을 제출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학적인 체계를 세울 정도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논문이 집적되어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한 것이지, 선언적으로 ‘제주학’을 정립하더라도 실질 연구가 없으면 그 생명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명백한 경험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위 제주를 소재적으로 다루는 연구나, 학제적 성격의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다루는 수준이 높다면 소재적 차원이나 학제적 성격의 연구도 제주학의 정립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며,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제주학을 앞에 내세우더라도 별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학문 분야의 정립에 방해가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제주학을 내세우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에 읽을 만한 논문이 없다는 상황일. 잡지 편집자와 발행자, 독자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여기서는 『탐라문화』의 등재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하여, 향후 제주학 정립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필자의 한정된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조금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

제주 사람으로서 소위 방언의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제주로 전학 온 나에게 당시 사회과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처음 질문한 사항이 ‘철마는 달리고 싶다’를 제주 방언으로 말해 보라는 것이었다. 대답하지 못한 나는 반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후 학교 생활 적응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는 반 친구들 중에서 정답을 아는 이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다.

서울에 가면 제주 사람들은 어설피지만 곧바로 표준어에 적응한다. 영남 사람과는 사뭇

1) 논문 형태로 구체화된 것은 『제주도 연구』 14집에 실린 전경수, 현길언, 신행철의 논문과 『제주도 연구』 15집에 실린 전경수, 이상철, 박찬식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대조적이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사람들은 모두 제주 방언을 공급해 한다. 호기심 차원이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상황이 심각하게 변지는 때도 있다. 가령 국문학과 대학원생이 국어를 전공하면 대개 제주 방언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라는 권유를 많이 받는다. 특이해 보이기도 하고 자료 상황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하니 심사 대상자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 마치 영어학을 전공하러 미국에 갔다가 한국어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는 많은 유학생들의 경우와 흡사하다. 문제는 단지 제주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 방언으로 논문을 쓰면 좋은 논문이 나오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필자의 관찰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고전이나 민속학을 전공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민요나 무가 등이 제주가 특이하니 이를 가지고 논문을 써보라는 주문이다. 현대문학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 문학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이러니 제주에 관련된 연구물을 필요로 할 때 많은 이들의 우선 관심이 제주대학교에 쏠리게 된다. 사실 그 지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그 지역대학에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연구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제주의 특이성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다시 개인적 체험으로 돌아가자. 필자가 제주도에 관한 책으로 제일 먼저 산 책이 무엇인고 하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총서 2권으로 『제주설화집성』이라는 두꺼운 책이다.<sup>2)</sup> 검은색 하드 커버의 그 책을 필자는 꽤 열심히 읽었으나 읽어내기가 버거웠다. 제주 방언이 그대로 표기되었던 탓이다. 물론 그 때의 독서 경험은 이후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술조사와 『백록어문』에 실리는 조사 보고서 등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제주어 표기법도 대부분 그 책에 의거한 것이다. 가장 최근의 학술 논의를 보더라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강여분 외, 2008)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히 그 책은 뒷전에 밀리게 되었는데, 결국 필자가 전주에 정착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전북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최전승(준칭 생략, 이하 같음)은 대를 이어 한국 방언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제주 방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그는 내가 부임하자마자 그동안의 궁금증을 털어놓으셨다. 한 예로 『제주설화집성』을 거의 통독하신 그는 곳곳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빨간 줄을 쳐놓고 계시다 나한테 자문을 구한 것이다. 거의 20여 년 동안 그어진 곳곳의 빨간 밑줄은 결국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결국 열심히 방언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 조사는 학술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작업의 단계상 처음에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전사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원어로만 표기되어서는 극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서는 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필자는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에 대한 서평을 쓴 적이 있는데(한창훈, 1997), 그 이유는 필자가 그 기관의 연구원이었거나 제주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요구를 그 책이 잘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도 몇 번 참가했지만, 가령 『백록어문』에 실리는 학술 답사 보고서의 문제는 자료가 그대로 전사되어 있어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다시 확인 조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라 다닌다는 것이다. 제주에서 산출되는 제주 관

2) 1권은 결국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몇 년후 결국 제주에서 『제주어사전』으로 발간된 것으로 안다.

런 자료는 제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 가공되어야 한다.<sup>3)</sup> 비교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현기영, 현길언 소설에도 가끔 대화에 표준어 역이 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문제로 들어가면, 대상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 곧 그 연구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 관한 인문학 연구 논문의 문제점을 욱지사람(?)이 지적했을 때, 제주 사람이 직관적 인식을 들이대며 ‘너 제주에 대해서 잘 알아’라고 나오면 그 다음 대화가 막힌다. 일반인도 참석한 학술대회에서 곧잘 등장하는 것인데, 욱지의 사회과학자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손들고 하는 말이, ‘내가 그 동네 사는데 ....’이다. 이렇게 전제하면 그 다음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필자가 접하는 지역 관련 논문들은 이런 것이 많다. 제주의 경우도 예외라 하기 어렵다.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직관이라는 특수성을 과도하게 적용한 논문들이 많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런 논문들은 구체적 기여도가 굉장히 낮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 문제의 경우, 이런 논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시야를 넓히면 한국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족문제이든 경제문제이든 문화문제이든 한국의 특수성을 직관적으로 과도하게 밀어부치는 논문 치고 좋은 논문 찾기 힘들다.

제주도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라는 전제는 논리적 귀결을 맺기 어렵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것이다. 지역 연구의 경우, 특수성을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직관적 특수성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며, 보편적 인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제주 방언이 아무리 특이해도 그것이 일본어나 중국어는 아니지 않는가? 필자가 조동일(1997)의 작업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욱지 출신의 서울대 교수가 제주도 무가를 높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제주도 무가를 거시적 시각에서 일관되게 해석하려는 자세 때문이다.<sup>4)</sup> 지역 문제에 대한 조동일의 미시적 인식 오류를 찾아내기는 쉽다. 그러나 그걸로 논리적 공격 논리를 세우기에는 조동일 교수의 보편적 인식에 대한 신뢰가 더 깊다. 김현선(경기대)의 일련의 연구도 그러한데, 욱지 사람이 제주에 대해 가지는 애정과 관심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그 보편적 인식 태도가 더 소중하다고, 적어도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 3. 인식의 ‘방법론’ 문제

제주학의 경우, 그것의 정립이 분명해지려면 연구 방법론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대상이 제주라는 지역으로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회지 등록 신청을 할 때, 『탐라문화』의 경우, 그 분야를 지역 연구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이라는 말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이 점은 대략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연구에 임하면서 구태여 제주학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마음 쓸 필요는 없다. 제주학의 정립 여부는 연구의 종합적 결과이지, 그것을 전제로 한 연구는 오히려 연구의 범위

3) 기존 제주학의 연구 중에서 자료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대표적 업적인 현용준(1980)의 1/3가량이 주석임을 다시 생각해보자. 제주 사람이 아니고 때문에 제주 방언을 잘 모르는 이수자의 이화여대 박사 논문은 이 책의 주석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후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집문당, 2004)로 출간되었다.

4) 최근 출간이 완료된 조동일의 제4판 『한국문학통사』 1권의 전체 서문을 보라. 구체적으로 탐라(제주)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나 방법에서 한계를 자초할 위험성도 있다. 그래도 제주학의 정립에 대한 기대나 그 가능성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연구의 진지성이 유지될 수 있기’(현길언, 2001:188)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 연구로서 제주학을 일단, ‘제주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장소나 문화에 관한 총체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이해를 증진하는 학문 분야’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듯하다. 최근의 지역 연구 경향에 따르면(김경일 편, 1998:24), ‘지역은 지식의 체계적 축적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분석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지역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학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모색되어 온 제주학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경수(1999)의 정리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 \* 넓히면 산다 : 광역화의 구도
- \* 밝히면 산다 : 정보화의 실천
- \* 뭉치면 산다 : 통합과학의 지향
- \* 사람을 생각하면 산다 : 주민 중심의 정신

이 될 것이다. 전경수는 인류학자이므로, 자연스럽게 인류학의 방법론이 많이 참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실 그 저변에 있는 것은 지역 연구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연구 대상으로서의 지역은 한편에서는 특정 국가내의 국지적 지역에서부터 다른 한편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을 포괄하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지역 연구는 사회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문학 전체와 일부 자연과학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경일 편, 1998:19-21)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총체적 연구를 위해서 제안된 학제적 연구의 필요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감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전공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전체 연구를 총괄하는 기획력의 부재라 하겠다. 제주학의 경우, 전공 이기주의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연구 기획력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이 바로 ‘비교’ 연구라 할 수 있다.

앞서 ‘특수성’과 ‘보편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도 ‘비교’ 연구만한 것이 없다. 물론 제주라는 대상을 한정하고 그것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혹은 통합적 접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는 제주라는 학문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없다. 하여 무한한 예찬론 아니면 의도적인 외면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 연구는, 그 대상의 특성을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 대상과의 상대적 거리를 통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교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현상이나 현상의 집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실질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sup>5)</sup> 주체와 객체의 문제도 있고, 비교의 준거 설정이라는

5) 연구과정으로서의 ‘비교’에 대해서는 『비교문화연구』 창간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1993)에 실린 논문들이 우선적으로 참고된다.

문제도 있다. 필자는 인식의 ‘방법론’으로서의 비교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인식과 방법론을 구별해서 논하는 이들도 있고, 이들의 논의가 더 정치하다. 여기서 이 둘 다 다를 여유가 없기에, 제주의 특성을 드러내는 유력한 방법론의 하나로 ‘비교’의 문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제주 문학을 중심으로 꾸준한 연구를 지속해 온 현길언(2001)은 ‘주변성’을 중심 특징으로 들었고, 김영화(2000)는 ‘변방인’이라는 말을 표제로 내세웠다. 용어 및 그 개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들의 이런 개념화가 주로 중앙 중심의 한국 문학과 제주 문학을 비교한 결과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타자와의 비교가 전제될 때 주체의 모습이 더 선명해 진다는 것은, 적어도 이제는 상식적인 수준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 하여 비교 집단의 설정에 따라 또 다른 개념화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이 때의 비교 대상은 국내의 다른 지역도 될 수 있고, 국내를 벗어날 수도 있으며, 같은 지역의 시간적 비교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섬이라는 지리적 측면에 주목해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지역과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sup>6)</sup> 이미 주목이 되고 있듯이,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이나 기타 적절한 지역과의 비교 연구도 제주학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sup>7)</sup> 제주의 같은 지역을 시차를 두고 조사해 그간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지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갖는 것과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지역의 비교 연구는 시간과 인력 등이 많이 들어가므로 개인이 감당해 낼 수 없다. 지금 형편으로는 대학의 유력 연구소 등이 이런 일을 맡는 책임자가 아닐까 한다.

이 외에도 앞으로의 과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문학을 연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제주학 정립을 위한 학문적 과제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인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 문헌 자료의 수합 및 정리 사업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대학이나 학회, 제주도나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많은 사업이 있어 왔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경수는 서울대 규장각 소재 제주 관련 자료 목록 조사를 해왔다. 그동안의 노력과 전산 기술의 발전으로 논문 목록이라거나 고려사, 실록 소재 제주 관련 기사 번역 등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많은 자료들이 학자들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 연구 인력의 분포를 보면, (그동안의 변화를 내가 모를 수도 있으나) 제주대학교의 경우 구비문학 관련 연구 인력에 비해 한문학 관련 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한다.

필자의 짐작에 제주학의 연구 방향을 바꿀만 한 인문학적 자료의 출현은 구비 자료나 현대 사회과학 자료보다는 한적 자료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 이미 영인 출간된 대정현 호적 자료에 대한 은기수(한국학중앙연구원 시절 이루어 졌다. 은기수는 이후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팀의 공동 연구에서 보듯<sup>8)</sup>, 좋은 자료가 나오면 좋은 연구가 이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지역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에 제일 좋은 방안은

6)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이런 업적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 물론 섬 문화 축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7) 오키나와와의 비교 연구는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져 『비교문화연구』 6.7집(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에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8) 『제주도 연구』 23집에 권오정, 정수환, 손문금, 허원영의 논문이 실려 있다.

BK, 누리, HK 등의 정부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있고, 목포대에도 도서문화연구소가 있고,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도 있고,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도 있고, 하여튼 독자적 작업이 힘들면 전략적 제휴를 통한 방안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기획 추진이 필요하다. 핵심은 연구 인력을 모으고 연구 방향을 집결 시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여기서는 대학 연구 기관이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다.

2) 사회과학의 경우,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연구 영역을 선도한다고 평가할 만큼 활발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문학과 결부되어 있는 4.3의 경우 그 성과는 아주 괄목할만하다고 평가된다. 최근에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문제, 평화의 섬 문제 등이 사회과학 연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역시 이런 문제에도 적절한 비교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많은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4.3과 관련하여,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와의 협동 및 비교 연구는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3) 자연과학의 문제도 있다. 역시 이 분야에 무지한 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 여러 전문가들에게 들은 귀동냥으로 짐작하건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주가 굉장히 매력적인 과학 연구의 대상이고 실제 많은 업적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선 착수할 수 있는 작업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고등학교 이상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서술하여 출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과학의 대중화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학의 경우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한다.

#### 4. 결론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거창한 주제를 들었으나, 그 내용이 소략하다. 그러나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할 말이 많다 보니, 정리도 잘 안되고 미처 글로 표현되지 못한 문제도 많다. 이번 기회에 많은 이들과 대화하고, 필자의 생각도 넓히고자 하는 욕심으로 다소 무리를 해서 글을 쓰게 되었다.<sup>9)</sup>

제주학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에 관한 연구 논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를 잘 정리하는 일,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는 일이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자료에만 매달린다고 연구 성과가 쌓이는 것은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연구의 전략을 잘 세우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에 연구 관점에서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 연구 등 특히 인식의 ‘연구 방법론’ 정립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제주학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제주학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연구자의 수도 늘었고,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많은 연구 업적이 쌓이고 있다. 이를 받아주는 학회도 있고,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도 적지 않다. 연구 업적에 대한 제도적 인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내심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

9) 특히, 논문 심사를 맡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서는 고마움과 미안함의 마음을 함께 전한다. 그 분들의 적절한 지적을 모두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으로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인다. 이처럼 제주학 연구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탐라문화』의 학술 등재후보지 선정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항상 고생이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1. 6. 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1-32집.

제주학회, 『제주도 연구』 14. 15. 23집.

김경일 편(1998), 『지역 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김영화(2000), 『변방인의 세계 : 제주문화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박찬식(1998),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인문학적 측면에서」, 『제주도 연구』 15집, 제주학회, 1998.

야노 토루 편(1997), 『지역 연구의 방법』, 전예원.

이상철(1998), 「제주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제주도 연구』 15집, 제주학회.

이수자(2004),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 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전경수(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경수(1997), 「제주학 :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 연구』 14집, 제주학회.

조동일(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최협 편(1997), 『인류학과 지역 연구』, 나남.

현길언(2001),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새판) 각, 2008.

<『탐라문화』 33집, 2008>